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보육교사의 지원경험과 요구*

Teachers' Experiences and Needs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Kids' Adaptation to the Childcare Center

1차원고접수: 2023.07.08. 수정원고접수: 2023.08.26. 최종게재결정: 2023.09.15.

홍예지¹ · 김유미²

¹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²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

Hong, Yea-Ji¹

Kim, Yumi²

¹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의 실재를 살펴보고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부설 직장어린이집인 S어린이집의 유아반 담임교사로 외국인 유아 보육경험이 있는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총 2회의 포커스 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지원과정에서 항상 지원이 필요한 요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어려움과 부담을 느꼈고, 이에 이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써야한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교사의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인해 유아는 점차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교사를 위한 향후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유아를 지도를 위한 부모, 교사용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과 각 반에 언어, 관계와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의 충분한 지원과 교사의 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을 지원하는 유아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소극적, 시혜적 관점에서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접근했던 한계를 벗어나, 유아의 주도성과 부모, 보조인력 등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외국인 유아, 어린이집, 적응, 지원경험, 지원요구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eign children's adaptation process to childcare centers and to find a direction to support them.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twice using the photo-voice method for seven teachers having experienced in caring of foreign children as homeroom teachers at S Childcare Center, a university-affiliated center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hildcare teachers recalled that they felt difficulties and burdens while recognizing that there was always a need for support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foreign children to adapt to the childcare center, and that they had to spend more attention and time for them. Moreover, the teache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provided efforts to communicate with foreig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the children gradually adapted to the childcare center. Furthermore, for future support methods for teacher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guidelines for parents and teachers for guiding foreign children and expectations for having sufficient support for auxiliary personnel regarding language and play in each class, and support for improving teachers' abilities are needed. This study can be used for establishing a systematic and prac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to realize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our society aims for.

Keywords *International kids, childcare center, adaptation, supporting experiences, supporting needs*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2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김유미 (Kim, Yumi)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yumikim7@sm.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무부(2023)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45,91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7%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체류지 관할 지역에 외국인으로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75.20%를 차지하여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의 교류 기회는 자연스럽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혼인 이주로서 국제결혼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은 급격히 변화(김현경, 2009)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모두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라 일컫고, 우리 사회에서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오재연, 송미선, 2009). 이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특히 보육·교육기관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교육부는 2006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한승수, 이승철, 2017).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 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은 다문화 가정 유아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환경 적응 문제 등 부적응 행동 양상(김환남, 이선애, 2013; 오재연, 송미선, 2009; 최양미, 김보현, 2020; Hartman & Manfran, 2016; Howes, Fuligni, Hong, Huang, & Lara-Cinisomo, 2013), 기관 내 적응(오재연, 김향자, 김경란, 2010; Mallett, 2017),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장은숙, 2009; Langeloo, Mascareño Lara, Deunk, Klitzing,

& Strijbos, 2019; Oh & Lee, 2019)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들의 다문화 교육 실행 경험을 탐색하거나(조민지, 황인애, 2021), 담임교사로서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유능감이 유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최형성, 2020) 또는 다문화 가정 내 부모와의 접촉 경험이 있는 유아 교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정계숙, 김미나, 이은하, 2019)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적응 및 발달을 살펴보고 있어 다문화 교육의 현실이나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 태도 및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중 외국인 근로자의 가정 및 자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2022년 3월부터 전국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외국인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학비(누리과정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만 지원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다르다(한국유아교육신문, 2023). 이처럼 외국인 가정 아동의 누리과정비나 보육료 지원의 제한은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이들이 자녀를 보육·교육 기관에 보내는 대신 가정 보육을 선택(한국유아교육신문, 2023)하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와 환경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인간의 욕구와 사회 환경의 조화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박성진, 이경옥,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적응은 생물학적인 변화보다는 기능적이며 학습된 변화로 간주된다. 보육·교육 기관에의 적응은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의 규칙과 기대를 따르는 것으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기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문제 없이 자신의 습성이나 생활방식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정원, 2002). 기관에의 적응은 하루 일과와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또래와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여 규칙을 준수하고 놀잇감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전은옥, 최나야, 2015). 즉 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유아는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래관계에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서로 다른 물적, 인적 관계의 구조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게 한다. 교사는 외국인 유아를 맞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결국 외국인 유아에게 ‘No’, ‘안돼’와 같은 부정어와 거부를 표현하는 말을 자주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한선흥, 이대균, 2013).

외국인 유아 역시 기본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에서 적응의 일방적 대상이 아닌 교실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만들어 가는 적응과정을 도모할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인 유아의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적응은 성취(achievement)와 과정(process)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Lazarus, 1976). 성취의 관점에서 기관에 적응이란 적응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응이 왜 생겼는지를 중점으로 적응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과정의 관점에서 기관에 적응은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응해가며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며 적응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과정의 관점에서 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환경 사이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 확장하여 볼 수 있다. 외국인 가정의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현시점에 필수적이며, 특히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성취관점보다는 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 중 0~4세 인구가 39,003명, 5~9세 인구가 40,203명에 이르는 것(국가통계포털, 2023)은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보육·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낯선 타국에서 삶을 사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의 차이로 인해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은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양육 경험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오성배, 2009; 조정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 유아를 지도하는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한선흥, 이대균, 2013). 무엇보다 타 문화권 기관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유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초기에 어떠한 사회적 적응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Tobin & Kurban, 2010), 이에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직면하는 외국인 아동의 다른 문화적 행동으로 인한 생활지도, 식습관지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일과 운영의 한계,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넘어 유아의 적응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노력 및 다양한 지원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육기관은 아동이 가족을 넘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경험을 쌓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최선의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특히 보육·교육기관에서 만나는 아동의 교사는 외국인 가정의 부모가 아동을 매개로 처음으로 맺는 공적인 인간관계의 대상이며,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이며 자원이다(봉진영, 배지희, 2012; Hamre et al., 2013). 이에 외국인 가정의 유아가 보육·교육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사는 유아의 기관 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을 위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모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부모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이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강영식, 김용숙, 김규수, 2010). 외국인 가정의 해당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교사의 반응적 지원이 이민자나 피난민 가정 아동의

적응을 도우며(Tobin, Adair, & Arzubiaga, 2013), 강점 기반의 접근 방식,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 촉진, 문화 중개를 위한 노력,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간 접촉을 높이기와 같이 이민자와 소수민족 아동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한 Keles, Munthe와 Ruud(2021)을 바탕으로 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정환(2012)은 일본의 보육·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부모가 지각하는 어려움으로 음식 및 식습관, 보육 활동, 보육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보다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선홍과 이대균(2013)은 외국인 유아를 지도하면서 외국인 학부모와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 면담이 가장 적절하면서 효과가 컸으며, 학부모와의 면담이 어려울 때 간단한 편지나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적고 소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이라 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아교사의 경험과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를 탐색한 조민지와 황인애(2021)는 다문화교육 실천을 위한 역량 있는 교사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지닌 부모를 위해서는 맞춤형 부모교육의 지원과 다문화교육 관련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 연계 지원 활동을 통한 부모의 협조적 태도는 자녀의 기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적응에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경험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적응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유아의 기관 적응과 부모의 양육을 돕는 데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외국인 가정 내 부모와 협력해 온 경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부모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요구사항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지와 황인애(2021)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의 운영 개선을 위해 유아교사에게 적합한 다문화 교육연수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표이정과 고진호(2019)는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행사, 체험 학습을 통해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가정통신문의 작성을 위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연구는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유아 교사의 요구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현재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이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지원하는 교육청 및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의 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논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개별 보육 기관에서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유아반 교사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 교사가 가지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오해, 다문화에 대한 표면적 수준의 교사인식(오주은, 2015; 이연선, 연희정, 김태경, 2015)이 가지는 문제를 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유아 교사의 지원 경험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러한 교사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경험과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지원경험과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S어린이집에서 만 3, 4, 5세 유아반 담임 교사로 외국인 유아 보육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S어린이집은 서울 소재 대학부설 직장 어린이집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직원 자녀가 재원하고 있으며, 이에 S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반 담당 교사는 거의 매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외국인 유아를 맡아 보육하고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연구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교사 가운데 최근 1년 내 외국인 유아를 보육했거나 현재 보육하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 7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집단면담 수행 시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의 동의 하에 녹화하고, 관련 자료는 전사되어 참고할 예정이지만 연구의 결과물은 추후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자료의 저장 및 보관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아의 부모에게 연구목적의 사진 자료 활용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 정보와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과 관련된 정보는 표 1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20대 5명, 30대 2명이고, 석사학위 1인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시설장 자격증, 4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1명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경력은 최소 2년 2개월에서 최대 11년 11개월이었다. 보육한 외국인 유아의 수는 2명~10명이며, 외국인 유아의 국적은 중국, 일본, 인도, 몽골, 베트남, 나이지리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다양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참여자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보육 경력과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 등을 고려하여 3 ~ 4명씩 두 개의 집단으로 총 2회,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각 면담시간은 2시간 6분 ~ 2시간 2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와 함께한 경험, 외국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및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 관련 정보

ID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교사 경력 (유아반 경력)	보육한 외국인 유아의 수	보육한 외국인 유아의 국적
A교사	30대	4년제 대졸	어린이집 원장	10년 11개월 (3년 11개월)	4명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B교사	20대	4년제 대졸	보육교사 1급	5년 11개월 (3년 11개월)	10명	베트남, 몽골, 일본, 중국
C교사	20대	4년제 대졸	보육교사 1급	5년 11개월 (3년 11개월)	5명	중국, 아르헨티나
D교사	20대	4년제 대졸	보육교사 1급	4년 11개월 (2년 11개월)	2명	인도, 나이지리아
E교사	20대	4년제 대졸	보육교사 2급	2년 2개월 (2년 2개월)	5명	태국, 베트남, 영국
F교사	30대	석사	어린이집 원장	11년 11개월 (8년)	9명	프랑스, 베트남, 대만, 영국, 인도네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G교사	20대	4년제 대졸	보육교사 1급	3년 11개월 (11개월)	2명	중국, 인도네시아

인 유아의 기관 적응과정에서 교사의 지원 경험 및 이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 요구에 초점을 맞춘 질문목록을 사전에 준비하여 활용하되 질문 방식에는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교사대상 면담 질문을 마련하기 위하여 Krueger와 Casey(2014)가 제시한 브레인스토밍, 질문 작성, 질문 순서 정하기, 연구자 간 상호 피드백, 질문지 수정,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에게 할 핵심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인 교사의 인적사항과 경력,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유아를 보육한 경험, 외국인 유아 어린이집 적응 지원 경험과 요구를 핵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는 관련 내용의 회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참여자의 원활하고 풍부한 경험 공유를 위하여 사전 준비 자료를 요청하였다. 즉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외국인 유아의 보육 경험 중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으로 느낀 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 소장 사진을 직접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포토보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통하여 연구 참여 교사의 개인 경험을 담화로 전환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Wang, Burris, & Ping, 1996).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표 2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자 하였다. 질문 목록은 이메일로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내용

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Krueger와 Casey(2014)의 방법에 따라 표 2와 같이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종합질문, 연구자의 요약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요약 질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포커스 집단면담의 전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화하였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모두 A4 105쪽이었으며,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의 속성과 주제 사이의 관계가 적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사된 자료는 면담내용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연속적 비교법을 통해 부호화하였다. 연구자 2인이 모두 분석에 참여하여 주제 도출 및 수정 작업을 반복하였고, 참여 교사의 확인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2인은 모두 S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외국인 유아 보육경험이 있으며, S어린이집의 보육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자 2인은 연구과정과 결과해석 시 이러한 연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교사들의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 경험이 어떤 굴절과 파장을 생성하는지(Peshikin, 1988)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2. 면접의 질문내용

면접 질문 준거	내용
외국인 유아 보육에 관한 전반적 경험	-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와 함께한 경험은 어떠한가요? -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와 함께 지내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의 보육 경험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담임교사로서 외국인 유아의 보육 경험 중 보람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 지원 경험	- 외국인 유아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전준비를 했나요? - 외국인 유아는 기관 적응과정에서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 외국인 유아의 기관 적응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했나요?
외국인 유아의 적응 지원을 위한 요구	- 외국인 유아의 기관 적응을 위해 효과적인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외국인 유아의 기관 적응을 위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교사 개인 요인	- 인적사항, 보육·교육기관 근무 경력,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

III. 결과 및 해석

1.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과정에서 느끼는 보육교사의 어려움

1) 잘 적응시키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추가적인 시간을 써야 하는 과정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유아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에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입소를 신입원아와 같이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가 항상 지원이 필요한 요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양가적인 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외국인 유아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유아의 모국에서도 제한된 경험을 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되지 않은 등 기관 적응 지원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아의 적응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 또는 여유시간은 없는데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부담을 느꼈다.

“반 자체에 20명이 있으니깐... 근데 거기에 아예 모르는 나라에 다른 언어를 가진 아이가 온다는 거는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 반에 온 이상 애는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깐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C교사)

“정글북에 나오는 정말 그런 친구 정말 날것 그대로 와가지고 되게 막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A교사)

“저도 외국에도 살다 와서 나는 도와줄 수 있을 거야라는게 꽤 있었는데 막상 외국인 아동들이 오니까... 힘들었어요. 추가적인 시간은 없는데 일은 조금 더 늘어난 느낌?” (E교사)

2) 언어의 한계와 관계의 장벽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와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 시 언어의 한계를 크게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친구,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린이집 적응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아는 또래와 교사에게 선뜻 다가가지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회상되었다.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인 초기 행동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 친구들이 외국인 유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 사용 능력 때문에 또래 상호작용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친구들의 처음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애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애야’라는 게 1년 내내 갔어요.” (A교사)

“기본 생활 습관은 많이 좋아졌는데 사회관계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한국말이 안되다 보니까... 아이들 놀이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이하는 게 대부분이고 역할 놀이가 주인데, 이 친구는 부릉부릉이라든가 단순한 운전 핸들 정도의 놀이만 되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B교사)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이 나타나 문장을 말할 수 있었을 때를 인상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이 때 외국인

유아의 발화가 외계어나 웅얼이 또는 의성어 같이 느껴져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C교사)

“(스페인어 지원 보조)선생님은 스페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는 자꾸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한국말이 아니라 앞에는 한국말 같은데 뒤에는 아닌 약간 외계어를 쓰면서 그걸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A교사)

“이 친구가 6~7월 적응을 해가면서 보였던 모습은 우리나라 말이 뭐 뭐 해 주세요. 뭐세요라고 끝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그걸 익혀서 앞에는 아랄랄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D교사)

2.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교사의 노력

1) 외국인 유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적응 지원을 위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인 유아와의 소통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아는 차츰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또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국인 유아의 변화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고 일관성 있는 꾸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대화할 때) 반복에 반복을 되게 많이 거쳐 왔고,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B교사)

“같은 얘기를 1년 내내 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하니깐 이제는 자기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A교사)

“이 친구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친구들 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제가 그 사이에서 함께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E교사)

그리고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지원에 있어서 교사와 외국인 유아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는 한국어 소통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사와 외국인 유아와의 관계 형성을 함께 고려하는 실천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자꾸 요구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하고 하니깐 애는 반항심이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애정 표현도 제가 먼저 하고 몇 번 더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조금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래도 조금 듣고...” (A교사)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와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필요한 말을 녹음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섬세한 내용 전달이 어렵고, 외국인 유아와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통의 제한점을 느꼈다.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섬세한 언어 전달이 돼야 하는데 파파고 같은 걸로 감정 없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인 중에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친구의 말을 녹음해 들려주기도 하고, 영어를 하는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옆에서 계속 있어주는 게 아니면 크게 도움을 못 느꼈어요.” (A교사)

2) 외국인 부모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

보육교사는 외국인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외국인 부모 역시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했다. 외국인 부모와의 소통에서도 번역기를 활용한 방식은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의 전달이 불충분하다는 어려움을 느꼈다.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부모와의 언어적 소통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상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저는 (번역기를)두 번 해봐요. 제가 한국말로 쓴 거를 영어로 넣어봐서 영어로 읽었을 때 맥락이 맞나 해보다 보니까 문어체에 맞게 쓰게 돼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에는 your mothe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너에게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D교사)

“언어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머님 아버지께서도 이해가 있어서 저는 긍정 행동이든 부정 행동이든 영상을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G교사)

외국인 부모의 협력은 일과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외국인 유아의 부모는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자녀의 적응정도에 따라 일찍 하원하거나, 어린이집 생활 중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즉각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아이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는 등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 외국인 유아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실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교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제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말을 하지 않는 외국인 유아 지도 시 부모와의 협력 방법을 활용하였다.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배변을 참는 외국인 유아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며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 유아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유아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복이고, 그 나라의 전통 모자를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부모님께서 먼저 해 주셨지만 만약에 교사가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B교사)

“이 친구가 샀던 기질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로 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거부했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기린이랑 다른 동물(화장실 문 앞에 붙인 그림)이 무서웠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고... 집에서 계속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서운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유를 일단 그걸로 알았으니까 그 후로는 저도 계속 기린 그림을 같이 보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중략) 그런데 저에게는 말을 안 하니까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D교사)

3. 담임교사가 바라본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1) 인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 유아의 적응

C교사는 그림 1과 같이 외국인 유아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인상적인 이미지로 이야기하였다. 해당 유아는 일과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바닥에 눕거나 마스크를 던지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교사가 해당 유아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옷 정리, 밥 먹기, 손 씻기, 친구 물건 가져가지 않기 등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하기 싫은 경우 이러한 눕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유아를 떠올리면 이와 같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특성은 교사에게 부정적으

로만 인식되지는 않았고, 유아의 행동에 약간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다.

“보통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보람을 느껴요. 평소에는 하기 싫어해서 교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행동들(신발 신기, 양말 신기, 양치하기, 기저귀 갈기)을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 뒤에 교사를 부르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할 때 나에게 애정이 있고, 잘 보이고 싶고, 스스로 해내는 것을 보람을 느끼는 구나를 알 수 있어요.” (C교사)

A교사는 기본 생활습관, 자조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신발을 신지 못하는 그림 2의 모습을 선정하였다. 교사와 친구들이 도움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주자 저항하며 힘들어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교사의 지원이 많이 필요했던 만큼 해당 유아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 보람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완화조치로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여름캠프에서 해당 유아가 귀가 전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인 그림 3을 인상적인 경험으로 말하였다. 외국인 유아가 부모님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과 서로 위로해 주는 새롭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 또래와 잘 어울리고, 어린이집에서의 기본생활 습관을 잘 익혀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또래 관계를 어려워했던 만큼 교사와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교사와의 애착이 많이 형성되어 잘 따르고,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A교사)

“작년에는 캠프도 없고 교실 안에서만 있었는데 올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는 날 밤 저녁에 부모님의 편지를 읽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영상 편지를 받았는데 그걸 보고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지 가기 전에 엄청 울고 막 서로 안아주고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고 성장을 하는 그 1년 반 2년의 과정이 되게 생각이 나면서...” (A교사)

B교사는 그림 4와 같이 외국인 유아가 교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일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이야기하였다.

“저는 바닥에 앉아 다른 유아들과 놀이를 하고 있었고, 뒤에는 보조 선생님과 외국인 유아가 놀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유아가 가위를 들고 와 제 묶은 머리에 가위를 넣고 자르는



그림 1. 바닥에 누워버린 외국인 유아



그림 2. 신발을 스스로 신지 않는 외국인 유아



그림 3. 캠프를 함께 하는 외국인 유아



그림 4. 교사의 머리카락을 자른 외국인 유아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며 머리카락을 잘린 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인상 깊게 남았고, 지금도 해당 유아를 생각하면 이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B교사)

유아가 교사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만큼 B교사는 무척 당황하였으며, 해당 유아를 외국인 아동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되는 성향의 아이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해당 유아는 기본생활습관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또래관계에서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렇다 보니 해당 유아는 점차 일과에 적응해가며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 갈 때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던 유아가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놀잇감을 던지거나 친구를 밀치는 행동 등이 많이 줄어들고, 교사에게 보보를 하거나 안기는 등의 모습을 보일 때 아 그래도 내가 이 유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람있었어요.” (B교사)

담임교사들은 각 장면에 대해 처음에는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특징으로 인식하는 언급을 하였으나, 점차 이러한 특성의 변화와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는 담임교사로서의 보람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아의 행동 특성이 단순한 교사의 어려움에 그치기보다는 교사가 유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결국 유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지원과 관계를 회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인상적인 적응은 친밀한 또래관계, 교사와의 편안한 상호작용, 언어에 대한 흥미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F교사는 외국인 유아 간에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그림 5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외국

인 유아가 친구들과 놀이하며 즐거워하고 웃을 때, 친구들과의 놀이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아가 하원시간에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할 때, 본국으로 놀러 가거나 한국을 떠나게 될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며 외국인 유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였다.

“후**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고, 주된 언어는 모국어인 투르크메니스탄어 그 다음 언어는 러시아어였어요.. 6살 2학기에 한국에 와서 바로 어린이집에 온 터라, 한국말을 ‘선생님’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지만, 혼자서 따로 놀지 않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한국말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영국계 유아인 카*와 말이 막 통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F교사)

“외국인 아동 두 친구들이 영어도 어느 정도 쓰면서 간단한 놀이를 주로 즐기더라고요.”(F교사)

G교사는 언어적 한계가 있음에도 교사와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게 된 것을 느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고 하며 그림 6을 선정하였다.

“에**는 밝고 활발한 편이긴 하나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학기 초에는 언어적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도 간단히 어느 정도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소변이 마려워도 참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교사가 볼 때까지 교실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소심했어요. 그러다 점차 친구, 교사와 가까워지고 편안해졌는지 최근에서야 변의 표현도 자신감 있게 하고 밝아졌어요. 저에게 본인이 만든 작품을 보여주며 설명하거나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한국어도 더 늘어 이야기 해 보았을 때가 생각나요.” (G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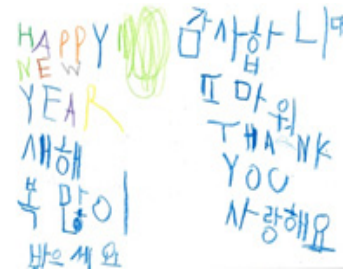
그림 5. 외국인 유아 간 친밀한 관계



그림 6.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외국인 유아



그림 7.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 유아



“외국인 유아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나를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지하는구나를 느꼈을 때 교사로서 보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G교사)

E교사는 그림 7과 같이 외국인 유아가 단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고 한글 연습에 관심을 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유아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더 수월하게 할 때예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놀이할 때 생기는 갈등 상황을 스스로 이야기 나누며 풀어가려고 할 때 유아의 한국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에 뿌듯했습니다.” (E교사)

2) 외국인 유아의 적응에 대한 교사의 성찰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적응에서의 언어적, 관계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점차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자신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아의 주도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을 보다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다각적인 인식을 하였다.

“특히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원어민만큼의 실력은 대부분 아니라 스스로

어린이집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주눅 들고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놀이를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발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G교사)

외국인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 자신의 말을 반응해 주는 또래, 같은 반에 있는 또 다른 외국인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 유아의 경우 오히려 한국 유아들의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국적 문제가 아닌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좋아하는 걸 하나 찾게 되면 그걸로 거의 한 달을 놀더라고요 다른 걸 찾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애착이나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그걸로 한 달을 놀면서 적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C교사)

“친구들이 마*을 정말 좋아하고, 마*이 친구들을 이끌며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적응은 국적 문제가 아닌, 아이의 성향에 따른 놀이차이로 보여졌어요. 마*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한국 유아처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한국 유아들을 서로 융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F교사)

또한 교사들은 집단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선정한 인

상적인 이미지에 대해 공유하면서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한국어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언어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는 인식의 한계를 성찰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하루 일과를 경험하고,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주변 친구, 교사와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중적인 접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육교사들은 앞으로 외국인 유아의 적응에서 언어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과 정서를 고려해야 함을 성찰하였다.

“인터뷰하다가 든 생각인데 지금까지 주로 언어(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적응을 했다고 봤는데, 이제 외국인 아동은 언어적 제약이 있으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아의) 행동으로 좀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B교사)

4. 교사를 위한 향후 지원 방안

1) 외국인 유아를 위한 부모, 교사용 정보제공

외국인 유아 보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 보육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이 부모,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 입소 시 일반적 개인정보 이외에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향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등 추가정보가 담임교사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생활과 가정에서 협력하여 지도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 교사용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출서류를 외국인 부모의 제 1 언어로 준비해 줄 수 있길 기대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아 입소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류 준비에도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고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교사가 더 많은 이제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미리 뭔가를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E교사)

2) 외국인 유아의 언어, 관계와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의 필요성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지원을 위해 언어뿐만 아니라 관계, 놀이와 같은 전반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어린이집에서는 대학부설 직장어린이집으로 대학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아의 제 1 언어 사용이 가능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아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일대일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아가 익숙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주일 1회 2시간 지원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에 입소한 초반에는 하루 종일 외국인 유아와 함께 있으면서 어린이집 생활 전반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적응 초반 이후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언어만 지원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집 일과 및 보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동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소지자가 지원해 준다면 외국인 유아의 포괄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현실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있는 보조인력 활용 시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기본 교육이 보장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그 친구만을 위한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어요.” (B교사)

“그 분은 독일어는 하실 줄 아셔서 독일어로 설명은 해주시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잘 모르셔서 역할에 제한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생활과 유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이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부모 면담도 단순 통역만 해주셔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길게 말했는데 짧게 전달하시기도 하고....” (E교사)

3) 교사의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

외국인 유아의 보육경험을 통해 보육교사는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은 스스로 일반 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는 실천 역량이 있다고 느끼지만,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자신의 편견 이외에도 사회적 고정관념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외국인 유아 보육은 또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이며 도전이 된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는 가장 먼저 외국인 유아와 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의 지원 이외에도 자신의 언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어쨌든 언어인데 언어가 좀 해결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영어가 되는 교사를 채용하고 나도 영어가 되는 교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C교사)

IV. 논의 및 결론

가정에서 기관으로의 전이는 유아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이며, 기관에서의 적응은 중요한 발달적 과업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적응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유아의 보육과 관련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의 실재를 살펴보고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들을 면담하여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지원과정에서 항상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요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교사에게는 외국인 유아에 대해 책임과 배려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관계뿐 아니라 빨리 그리고 잘 적응시켜야 하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양가적인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적응은 유아가 조화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교사 및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며 어린이집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Pianta, Steinberg, & Rollins, 1995). 하지만 새로운 질서와 규칙, 낯선 경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긴장, 불안, 좌절, 공격성 등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므로(Asher & Rose, 1997) 어린이집 적응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동시에 어렵고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최미숙, 박지영, 2014). 한국인 유아들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기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활 적응과 또래관계에서 언어로 인한 문제가 발견되고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사회적 위축감을 보였다(손수민, 2011; 염지숙, 2010). 따라서 외국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단순 부적응으로 간주하고 빨리 적응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맥락의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시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안지혜, 2014).

외국인 유아의 경험이 가지는 독특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타 언어문화권 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한 유아가 적응 초기에 경험한다고 보고된 침묵기(silent period)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침묵기는 다른 언어 환경에 처한 유아가 모국어 의사소통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며 일시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시기로(Drury, 2013), 한

달에서 몇 달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Igoa, 1995). 이 시기 동안 유아는 사회적 관계에서 폐쇄적이며 상호작용을 위한 능력이 부족한 결핍의 상태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침묵기 동안 유아는 조용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으며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Krashen, 1982). 그리고 유아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위하여 사적 장소에서 혼잣말 연습의 패턴을 만들어 가므로, 침묵하고 있는 듯 보여도 능동적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Saville-Troike, 1988). 즉, 침묵기 동안에도 유아는 적응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이 시기 나타나는 유아의 혼잣말과 발화연습을 유아의 노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외제어나 웅얼이와 같은 낯선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침묵기는 무의미한 부적응의 시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듣기와 혼잣말 연습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침묵기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외국인 유아의 적응과정의 특성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주체적인 노력을 고려해 볼 때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은 때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교사의 부담으로도 나타난다(한선희, 이대균, 2013).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활동 시 일대일 설명을 따로 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S어린이집은 대집단 활동은 지양하고 유아의 관심사에 따른 주제탐구표현활동을 진행하며,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놀이중심 보육과정이 가지는 보편적 학습(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영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개방한다(Rubin, Fein, & Vandenberg, 1983). 외국인 유아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외국인 유아가 편안하게 어린이집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아의 일

상적 놀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보육교사는 외국인 유아와의 소통, 부모와의 협력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교사의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유아는 점차 어린이집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유아의 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번역기, 동영상 활용하는 적극적인 협력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교사는 외국인 유아의 적응을 위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부모와 소통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조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유아의 적응은 유아를 둘러싼 다층적인 환경 즉, 가정, 기관, 교사, 또래, 지역 사회 등 사회적 맥락과 유아 간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중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도구적 지지의 역할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Pianta & Walsh, 1996). 또한 교사의 협력적인 다문화 교육전략은 교사와 유아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를 변화시킨다(Campbel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의 외국인 부모를 고려한 관계 지향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한 실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이주의 동기 및 체류예정 기간, 이민사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Ogbu, 1994). 부모가 이민 국가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려는 열의를 보이는 태도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 간접적이지만 주요한 영향력을 갖는다(Gardner, 2019; Kraemer, 1993). 외국인 부모 중 영구이주를 결정한 사람들은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 또한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와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아의 이주배경과 같은 추가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지원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이민가정은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에 언어 및 문화적 제약이 있고(Allen, 2007), 주류사회 부모에

비해 자녀의 교육활동 지원에 소극적(Turney & Kao, 2009) 참여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은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는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원 내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해 외국인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 간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정환, 2012).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협력은 교사, 영유아, 부모 간 협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부모와 부모가 함께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적응과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부모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외국인 부모의 우리나라 생활적응과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 및 발달지원을 위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유아 보육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적응기간을 통상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적응기간 2주’와 같은 미리 명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외국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변화에 필요한 시간은 모두 다르다는 개별성 인식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개별성을 발견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초기에 보이는 침묵기와 같은 모습과 정말 불안해서 교사가 도와줘야 될 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교사의 민감성이 필요함을 함께 제안하였다. 교육의 시작점은 유아들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Ayers, 2001). 이를 위하여 교사에게는 외국인 유아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는 사려 깊은 민감한 관찰과 외국인 유아를 주체적 학습자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적응과정에 대한 인상적인 이미지로 적응 초기에 나타난 바닥에 눕기, 울기, 교사의 머리카락 자르기와 같은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지 부정적인 인식에 그치지 않았다. 교사와 외국인 유아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오히려 처음 모습에서 점차 변화되는 외국인 유아의 적응과정의 모습을 연결해 보며 긍정적 행동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넷째, 보육교사들은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면담을 통해 자신의 실천을 스스로 돌아보고 함께 성찰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였다. 면담 초기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적응을 접근하였다. 면담 과정을 거치면서 보육교사들은 스스로 어린이집 적응을 언어와 그로 인한 또래관계 문제에 치중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점차 적응해가는 변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의 적응을 전반적인 행동과 정서를 고려하여 파악하고 살펴야 한다는 앞으로의 보육 실천 방향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영유아가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는 것은 사회 정서 발달과 관련되며, 교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이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다(유지연, 황혜정, 2015).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영유아는 교사의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 표현보다 교사의 자세, 신체접촉 및 모델링과 같은 행동적 상호작용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는다(Kaiser & Rasminsky,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영아와 교사가 신체접촉을 동반한 놀이를 함께 한 경험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또래관계 개선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이어리, 김유미, 2020). 이는 외국인 유아의 지원을 한국어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접근하던 관점에서 변화하여 교사와 외국인 유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실천이 적극적으로 도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어떤 사건에 대한 단 하나의 정확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흐르는 강물이 담아내는 순간의 모습처럼 실천을 통해 지엽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곽영순, 2009). 교사들은 면담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며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언어에 치중하여 적응을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였다. 교사가 자신의 보육 경험을 돌아보며 의미를 생성해 내는 이러한 모습은 교사들에게 당면한 외국인 유아 보육이라는 문제를 대

하는 데 있어서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가 지식, 경험, 실천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실천을 반성, 개선하는 과정으로 교사들의 실천 공동체이다(Sergiovanni & Starratt, 2007). 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여자 자신의 실천을 공유하는 것은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며(안혜준, 2014), 직무만족도와 교수활동을 즐기는 교수몰입과 같은 정의적 특성의 변화와도 관련된다(손주리, 김유미, 2023). 이와 같이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 전문성은 교사들이 경험한 맥락에서 도출된 보육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 보육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 및 교사용 지침서, 어린이집 문서 지원과 같은 관련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료 및 문서지원 이외에도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과 놀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이 효과가 있으므로 확대지원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외국인 유아의 제 1 언어 지원 중심의 보조 인력, 단순 통역지원 역할보다는 유아와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 보조인력이 양성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가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 가정 유아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 집단에 비해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이는 교사가 다문화 가정 유아와 같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다른 유아들보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줄 수도 있고, 나름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외국인 유아를 문제가 있고, 교사가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배려하는 보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응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며,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Ladd & Price, 1987).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 및 정체성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보육교사가 가지는 교사의 정체성, 유아에 대한 관점은 외국인 유아, 환경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며 형성되어 간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가 외국인 유아를 대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는 교사가 주도하는 주체적 과정으로서 교사되기(becoming) 노력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유아가 언어능력과는 무관하게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으로 놀이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은 외국인 유아에게 부적응의 문제가 있다는 일반화된 편견을 깨는 동시에 외국인 유아의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사의 인식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적응에는 부모가 중요한 환경이 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부모의 특성과 협력력이 가지는 자녀 적응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외국인 유아로 통칭하여 접근한 한계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 유아를 개별적 특성을 가진 개인이 아닌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이라는 분류는 실제로 29개의 개별 민족으로 구성된 집단이 가지는 언어, 종교, 가치, 문화적 규범과 같은 주요한 차이를 은폐하게 된다(Atkinson, Morten, & Sue, 1998). 따라서 추후 어린이집 및 관련 연수에서는 외국인 유아가 가지는 다양성 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태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유아와 부모를 대할 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 지식, 태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Seefeldt, 2005).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및 다문화 인식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생생한 경험을 통해 외국인 유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인식, 의지, 역량, 실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외국인 유아를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린이집 부적응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 시혜적 시각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아를 주체로 인식하고 이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맺는 호혜적 관점에서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영식, 김용숙, 김규수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이 교사-유아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9(2), 67-92.
- 강정원 (2002). 치료를 통한 부적응 행동 유아의 사회적 관계 증진 과정: 탐색에서 성장까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영순 (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국가통계포털 (2023). 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vw_cd=MT_ZTITLE&list_id=A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년 5월 13일 인출
- 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https://doi.org/10.17643/KJCE.2015.24.2.08>
-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 김환남, 이선애 (2013).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부적응행동 비교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229-252.
- 박성진, 이경옥 (2019).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열린유아교육연구*, 24(6), 101-126. <https://doi.org/10.20437/KOAECE24-6-05>
-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2008).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40(3), 1-28.
- 법무부 (2023).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3년 5월 11일 인출
- 봉진영, 배지희 (2012).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탐구. *유아교육연구*, 32(3), 383-405.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3.017>
- 손수민 (2011). 만3세 한국인 유아의 미국 유치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147-172.
- 손주리, 김유미 (2023).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공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수준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7(1), 109-130. <https://doi.org/10.32349/ECERR.2023.2.27.1.109>
- 안지혜 (2014). 영아 초기 적응과정에서 영아보육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적응기간의 의미. *한국보육학회지*, 14(3), 81-105.
- 안혜준 (2014). 유아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분석을 통한 학습공동체 경험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8(4), 5-32.
- 염지숙 (2010). 기러기 엄마와 조기유학 어린이의 삶. *유아교육학논집*, 14(5), 367-386.
-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재연, 김향자, 김경란 (2010).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9(3), 171-201.
- 오재연, 송미선 (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51-269.
- 오주은 (2015). 타 언어권 유치원에서의 초기 사회적응 사례 연구: 침묵기(silent period)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279-300.
- 유지연, 황혜정 (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https://doi.org/10.14698/jkce.2015.11.3.001>
- 이어리, 김유미 (2020). 치료놀이 기반 놀이 상호작용을 통한 외국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교사의 지각을 중심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3(1), 83-111. <https://doi.org/10.47801/KJIMH.13.1.5>
- 이연선, 연희정, 김태경 (2015).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은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9(4), 223-244.
- 장은숙 (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 *한국유아교육연구*, 11(1), 87-110.
- 전은옥, 최나야 (2015).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관계: 기관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4, 93-119.
- 정계숙, 김미나, 이은하 (2019). 교사가 인식한 다문화가정 부모의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사점. *다문화교육연구*, 12(2), 1-33. <https://doi.org/10.14328/MES.2019.6.30.1>
-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1(3), 5-25.
- 조민지, 황인애 (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유아교사들의 경험 탐색. *유아교육연구*, 41(3), 209-235. <https://doi.org/10.18023/kjece.2021.41.3.009>
- 최미숙, 박지영 (2014). 유아의 성격이 기관적응에 미치는

- 영향력과 놀이성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6), 299-316.
- 최양미, 김보현 (2020).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행동 분석 및 함의. *다문화와 평화*, 14(3), 48-72.
- 최형성 (2020). 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유아-교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연구*, 20(14), 677-698.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4.677>
- 표이정, 고진호 (2019). 다문화가족의 유치원 자녀 교육지원 방안-서울시 다문화유치원을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9(2), 53-67.
- 한국유아교육신문 (2023). 경기도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https://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1>에서 2023년 5월 11일 인출
- 한선홍, 이대균 (2013). 외국인 유아를 지도하는 한국인 유치원 교사의 어려움 및 노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09-240.
- 한승수, 이승철 (2017).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 교육지원 방안 연구-경기도 다문화유치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9(2), 47-66.
- 현정환 (2012). 일본의 보육소·유치원의 다문화 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문제 대응 방식에 관한 연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7(1), 1-18.
- Allen, R. (2007). Allocating pupils to their nearest secondary school: The consequences for social and ability stratification. *Urban Studies*, 44(4), 751-770.
<https://doi.org/10.1080/00420980601184737>
- Arredondo, P. (1998). Integrat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universal helping conditions in culture-specific contex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4), 592-601.
<https://doi.org/10.1177/0011000098264003>
- Asher, S., & Rose, A. (1997). Promoting children's social-emotional adjustment with peers.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196-203). New York, NY: Basic Books.
- Atkinson, D. R., Morte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5th ed.). Boston, MA: McGraw-Hill.
- Ayers, W. (2001). *To teach: The journey of a teacher* (2nd 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Campbell, D. E. (2010).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Drury, R. (2013). How silent is the 'Silent Period' for young bilinguals in early years settings in England?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1(3), 380-391.
<https://doi.org/10.1080/1350293X.2013.814362>
- Gardner, R. C. (2019).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M. Lamb, K. Csizér, A. Henry, S. Ryan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motivation for language learning* (pp. 21-37). Cham: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07/978-3-030-28380-3_2
- Hamre, B. K., Pianta, R. C., Downer, J. T., DeCoster, J., Mashburn, A. J., Jones, S. M., Brown, J. L., Cappella, E., Atkins, M., Rivers, S. E., Brackett, M. A., & Hamagami, A. (2013). Teaching through interactions: Testing a developmental framework of teacher effectiveness in over 4,000 classroom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13(4), 461-487.
<https://doi.org/10.1086/669616>
- Hartman, S., & Manfra, L. (2016). Change in child behaviour concerns associated with childcare quality features among a sample of low-income Latino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6(9), 1378-1391.
<https://doi.org/10.1080/03004430.2015.1095019>
- Howes, C., Fuligni, A. S., Hong, S. S., Huang, Y. D., & Lara-Cinisomo, S. (2013). The preschool instructional context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4(3), 273-291.
<https://doi.org/10.1080/10409289.2011.649664>
- Igoa, C. (1995). *The inner world of the immigrant childre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aiser, B., & Rasminsky, J. S. (2017).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4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Keles, S., Munthe, E., & Ruud, E. (2021).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s promoting social inclusion of immigrant and ethnic minority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6.
<https://doi.org/10.1080/13603116.2021.1979670>
- Kraemer, R. (1993).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study of Arabic among Israeli high school students: A test of Gardner's socioeducational mode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1), 83-105.
<https://doi.org/10.1017/S0272263100011670>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 Krueger, R. A. and Casey, M. A. (2014). *Focus groups:*

-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dd, G., & Price, J.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https://doi.org/10.2307/1130613>
- Langeloo, A., Mascareño Lara, M., Deunk, M. I., Klitzing, N. F., & Strijbos, J. W.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with multilingual young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9(4), 536-568. <https://doi.org/10.3102/0034654319855619>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Mallett, C. A. (2017). The school-to-prison pipeline: Disproportionate impact on vulnerable children and adolescent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49(6), 563-592. <https://doi.org/10.1177/0013124516644053>
- Ogbu, J. U. (1994).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learning.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7(4), 354-383. <https://doi.org/10.1177/016235329401700404>
- Oh, J., & Lee, K. (2019). Who is a friend? Voices of young immigrant children.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7(5), 647-661. <https://doi.org/10.1080/1350293X.2019.1651967>
- Peshkin, A. (1988). In search of subjectivity: One's own. *Educational Researcher*, 17(7), 17-21. <https://doi.org/10.2307/1174381>
- Pianta, R. C., Steinberg, M. S., & Rollins, K. (1995).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deflections in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297-312.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6519>
- Rubin, K. H., Fein, G., & Vandenberg, B. (1983). Play.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V—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694-774). New York: Wiley.
- Saville-Troike, M. (1988). Private speech: Evidence for second language strategies during the silent period. *Journal of Child Language*, 15(3), 567-590. <https://doi.org/10.1017/S0305000900012575>
- Seefeldt, C. (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New Jersey: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Sergiovanni, T. J., & Starratt, R. J. (2007). *Supervision: A redefinition* (8th ed.). New York: McGraw Hill.
- Tobin, J., & Kurban, F. (2010). Preschool practitioners' and immigrant and immigrant parents' beliefs about academics and play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urriculum in five countries. *Orbis Scholae*, 4(2), 75-87.
- Tobin, J., Adair, J., & Arzubia, A. (2013). *Children cross borders: Immigrant parents and teacher perspectives on preschool for children of immigrant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Turney, K., & Kao, G. (2009). Barriers to school involvement: Are immigrant parents disadvantaged?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257-271. <https://doi.org/10.3200/JOER.102.4.257-271>
- Wang, C., Burris, M. A., & Ping, X. Y. (1996). Chinese village women as visual anthropologists: A participatory approach to reaching policymakers. *Social Science & Medicine*, 42(10), 1391-1400. [https://doi.org/10.1016/0277-9536\(95\)00287-1](https://doi.org/10.1016/0277-9536(95)00287-1)